

구글 검색어에 드러난 인간의 욕망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지음

이영래 옮김



지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비호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반전 그 자체였다.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클린턴 힐러리의 당선을 점쳤었다.

당시의 그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선거 직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을까? 혹은 설문조사에 '실제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던 것일까?

세계가 주목하는 데이터 과학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는 당시의 데이터상의 비밀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트럼프 지지층이 흑인 비하 단어인 '깜둥이' (nigger)를 검색하던 인종주의자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원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이 흑인을 혐오하며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펴낸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검색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과 생각을 들춰낸다.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마존'의 '올해의 책'에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들춰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삽화. <광주일보 자료>

선정되기도 했다.

책에는 인종주의뿐 아니라 정신질환, 성생활, 낙태, 종교, 건강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이 거짓말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손해 본 표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했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단어가 지역별, 시간별로 얼마나 자주 검색되는지를 알려주는 구글 서비스다. 지난 2008년 11월 오바마가 당선된 날, 일부 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보다 '깜둥이 대통령'을 더 많이 검색했다. '오바마'가 들어간 검색어 100개 중 1개에는 'kkk'나 '깜둥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아닌 척 숨겼지만 사람들은 마음껏 드러냈다. 저자는 지역별 인종차별적 검색어를 토대로 미국의 인종주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지지율을 표시한 지도와 일치했다.

구글 검색이 의미 있는 것은 데이터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을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검색엔진에는 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 중 관심사항 중 하나가 성생활이다. 구글에 드러난 결혼생활의 큰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섹스 없는 결혼생활'이 '불행한 결혼생활'보다 3.5배 많이 검색되고 '사랑 없는 결혼생활'보다 8배나 많이 검색된다.

뿐만 아니라 대화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16배 많다. 연인관계의 커플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 애인보다 성관계를 원치 않는 애인에 대한 불만이 5.5배 많았다.

"추측컨대 당신은 고상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생각을 검색창에 입력하곤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인 대다수가 구글에 매우 사적인 사항을 이야기한다는 너무도 강력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날씨'보다 '포르노'를 더 많이 검색한다. 남성25퍼센트와 여성 8퍼센트만이 포르노를 본다고 인정한 설문조사 데이터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렇듯 사람들은 표면과 달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구나 연인, 의사에게뿐 아니라 정작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향후 데이터 과학이 모든 학문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퀘스트·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미술로 보는 한국의 미의식 1=이 책은 한국인의 4대 미의식 중 하나인 '신명'이 어떻게 조형언어로 양식화되었는지를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미술에서 신명이 담긴 작품들을 동서고금의 작품들과 비교하며 미학적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미술의 미학적 가치를 새롭게 눈뜨게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미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문화·1만8000원>
▲남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이 책은 생후 1년의 삶이 평생의 불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했다.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였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한 생물학을 다룬다. 먹구름처럼 드리운, 벗어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그 원인과 해법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줄 책이다.

<푸른숲·1만6000원>
▲로봇 시대에 불시착한 문과형 인간=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문과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철학 교수의 인공지능 강의록 책으로 옮겼다. 저자는 철학 교수가 왜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인공지능 시대야말로 철학은 필수"라고 답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로봇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로봇과 인간의 '존재'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기술의 진화는 필연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빛비즈·1만4000원>
▲중국예술철학=예술은 중국인들의 정신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고대 예술사상에서는 옛사람들의 철학사상을 체현한다. 중국 옛사람들의 시적 사고에서 만사와 만물은 모두 생명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다. 저자는 예술 창작을 통해 심리적 자유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이 책을 통해 중국 특색의 예술철학을 체계적으로 해석했다.

<동국대학교출판부·2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인어소년=제주도와 인어 세계를 넘나드는, 혼혈 인어 규리의 바닷속 성장 모험담이다. 바깥 바다, 인어 세계에 있는 인어의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는 플라스틱 섬, 고래의 마지막 시간을 간직한 고래 무덤,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새롭고, 무섭고,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바다라는 공간에서 꿈꾸었던 이야기가 펼쳐진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반달숲의 거인=책은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고아 출신에 작은 몸집을 지녔으나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뚝뚝 뚫은 소년 '해비취'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 한 가정, 더 나아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 낸다. 거대한 자연, 그곳에서 자기만의 거인을 발견한 해비취의 성장기는 뼈뚫은 현실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상상 세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이다.

<시공주니어·1만1500원>

▲건강하려면?=호기심 나라 오기도 신개념 과학&놀이 매거진 열여덟 번째



이야기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준다.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운동' 이야기가 담긴 건강 이야기 상자를 만들어보면서 건강한 몸을 위한 준비를 소개한다.

<문학사치리틀북·1만원>

‘총, 균, 쇠’·‘조선상고사’…르포로 엮은 18권의 역사서

역사의 역사

유시민 지음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부터 유발라리의 '호모 사피엔스'까지.

2500년의 시간 동안 동서양 역사들이 남긴 역사서를 통해 '역사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책이 출간됐다.

유시민의 새 책 '역사의 역사' (History of Writing History)는 '역사서로의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에게 의미있는 책이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서 출발해 과학을 끼안으며 예술로 완성된다'고 말

작 행위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책에서는 역사가 16명이 쓴 18권의 역사서를 다루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후란시스 후쿠아마의 '역사의 종말', 에드워드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스발트 A,

G 슈펩글러의 '서구의 몰락',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등이다.

국내 역사서로는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형사', 신재호의 '조선상고사',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를 만난다.

저자는 이 책의 성격에 '역사 르포르타주' (Reportage-르포)로 규정했다. 저널리즘(사실 보도), 역사 서술(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 문예 창작(예술적 감정 표현)을 넘나드는 문학장르로 '세계를 뒤흔든 열흘', '중국의 붉은 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각각의 역사서에서 직접 발췌, 요

약하고 번역한 문장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한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

저자는 "책을 읽으며 흥미로운 역사의 사실을 아는 즐거움을 얻었고 사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쁨을 느꼈다. 더불어 저자가 역사의 사실과 논리적 해석에 덧붙여 둔 희망, 놀라움, 기쁨, 절망감, 원망과 같은 인간적·도덕적 감정이 더 귀하게 다가왔다"며 "역사의 매력은 사실의 기록과 전승,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다"고 말한다.

둘째와 '카카오페이지'는 저자가 책을 집필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편안히 털어놓은 특별인터뷰 영상을 공동제작, 카카오페이지 앱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4주간 제공 중이다.

<둘째·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 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찌개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사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펜션건물 맞춤형 디자인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시공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 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전남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